

0916(금) 요엘 1-3장 여호와의 날

요엘은 <여호와의 날>에 집중한 선지자입니다.

요엘 시대에는 메뚜기 떼로 인한 큰 재해가 있었습니다.

수년 내에 복구가 불가할 정도로 전 국토가 황폐해졌습니다(1장).

곡식/포도주/열매/기름뿐 아니라 소제/전제까지 끊겼습니다.

요엘은 이를 하나님의 <공습경보>라고 여겼습니다(2:1,15-16).

하나님이 경고하신 <언약적 저주>를 기억했습니다.

(신4:32-34, 28:38, 호2:8-13)

<여호와의 날>은 메뚜기 재해보다 더할 것입니다(1:15, 2:11).

성전에도 기쁨이 없고, 파괴/살육/궁핍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(1:6,15-20).

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군대가 마병처럼 진군해 올 것입니다(2:4-5,11).

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아

어둠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(2:1-2,6, 3:4-13).

그러나 주의 백성에게는 위로와 보상의 날이 될 것입니다.

하나님은 백성을 위해 싸우시며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.

땅을 치유하고 번영케 하실 것입니다(2:18-27, 3:9-11,16,18-21).

남녀노소, 종과 자유인에 차별 없이 **영을 부어 주셔서**

<하나님을 아는 지식>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.

(3:17-21, 렘31:31-34, 갈3:28 참고)

“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(2:32).

누군가에겐 <여호와의 날>이 기쁨과 환희의 날이겠지만(3:16),

누군가에겐 어둠과 공포,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(3:14-15).

이스라엘은 참회하고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(2:1,12-17).

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야 합니다(2:13).

나는 <여호와의 날>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?

❶ 재해와 재난 앞에 세상적 손익과 피상적인 대책만 떠올립니까?

❷ <여호와의 날>을 떠올리며 삶과 신앙을 재정비합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요엘 1-3장